

▶ 10~13세기 새로운 왕조의 성립

- 송 건국
- 요 건국
- 금 건국
- 몽골 제국 수립
- 요 멸망
- 금 멸망
- (북)송 멸망
- 남송 멸망

900

1000

1100

1200

1300

| | |
|------------------|--|
| 랴오허강 상류 | • 거란, 야율아보기의 칭제(916), 요(遼) 국호 사용(947) |
| 중원 | • 주전중의 후량 건국(907~923) ⇨ 5대 10국의 분열(절도사, 907~979) ⇨ 송(宋) 건국[조광운(1, 재위 960~976), 카이펑, 960~1279] |
| 중국 서북 지역 | • 탕구트족, 서하 건국(흥경, 1032) ⇨ 칭제건원(이원호, 1038) ⇨ 호수천 전투(⇒ 북송, 1041) ⇨ 경력의 화약(1044) |
| 한반도 | • 후삼국 시대(900~901~936) ⇨ 고려 건국(왕건, 918) ⇨ 발해 멸망(926) ⇨ 고려의 후삼국 통일(936) |
| 일본 열도 | • 헤이안 시대(794~1185) ⇨ 미나모토노 요리토모(1147~1199)의 가마쿠라 막부 수립(1185~1333) ⇨ 쇼군(정이대장군) 책봉(1192) |
| 북부 베트남 지역 | • 응오 왕조(939~944) ⇨ 리 왕조(1009~1225) ⇨ 쩐 왕조(1225~1400) |
| 만주 지역 | • 금(金) 건국[여진 완옌부, 무원황제 아구다, 수도 상경 회령부(上京會寧府, 현 하얼빈), 1115] ⇨ 중도(베이징) 천도(③ 인효황제 완안옹, 1153) ⇨ 카이펑 천도(④ 해릉왕 완안량, 1157) ⇨ 중도 천도(1161) ⇨ 카이펑 천도(1215) |

10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새로운 국가들이 나타나 국제 질서가 재편되었다. 랴오허강 상류 지역에서는 거란(요), 중원에서는 송(宋), 한반도에서는 고려(高麗)가 등장하였다. 북부 베트남 지역에서는 대월(1054~1804), 중국 서북 지역에서는 서하(西夏)가 등장하였다. 12세기에는 만주 지역에서 여진(금)이 성장하여 세력을 떨쳤다. 이 국가들은 서로 사절을 교환하고 교역하면서 다원적인 국제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 관계는 안정적이지 않았다. 거란과 송은 자주 군사적으로 대립하였고, 서하도 오랫동안 송과 전쟁을 벌였다. 고려와 거란도 군사적으로 충돌하였다. 일본은 9세기 말부터 대외 관계에 소극적이었다. 오랫동안 교류와 대립을 반복하던 신라와 국교를 단절하고, 견당사(630~894)의 파견도 중지하였다. 1185년에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에 막부(幕府, 장군의 진영)를 세우고, 1192년 일왕에게 쇼군(정이대장군)의 칭호를 받았다. 가마쿠라 막부 역시 대외 관계에 소극적이었으나, 민간 교역이나 문화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야율아보기의 요 건국(916) \Rightarrow 밸해 정복(926) \Rightarrow 동단국 수립(926) \Rightarrow 연운 16주 차지(from 석경당, 936) \Rightarrow 전연의 맹약(~ 북송, 1004) \Rightarrow 멸망(1125)

거란은 랴오허강 상류에 살던 유목민으로, 10세기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냈다. 야율아보기(?~926)는 당 말~5대의 혼란을 피해 거란의 영역으로 망명한 한인(漢人)들의 협력을 얻어 세력을 축적한 후 마침내 거란족 전체를 통일하였다. 이어 칸의 자리에 올라 독립 국가를 세우고, 916년에는 중국을 모방하여 황제라 칭하였다. 그는 동서로 원정에 나서 서남방으로 탕구트 등을 제압하고 세력 범위를 오르도스 지방까지 확장하였다. 이후 요(遼)는 밸해를 멸망시키고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를 차지하여 송(宋)을 압박하였으며, 고려를 여러 차례 침공하였다. 통화 22년[1004] 송은 매년 20만 필의 비단과 10만냥의 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란과 형제 관계의 맹약을 맺었다(진종~야율옹서). 거란은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이원적 통치 제도를 시행하였다. 거란은 농경민과 유목민을 분리하여 통치하는 남면관제(농경민·북면관제(유목민)를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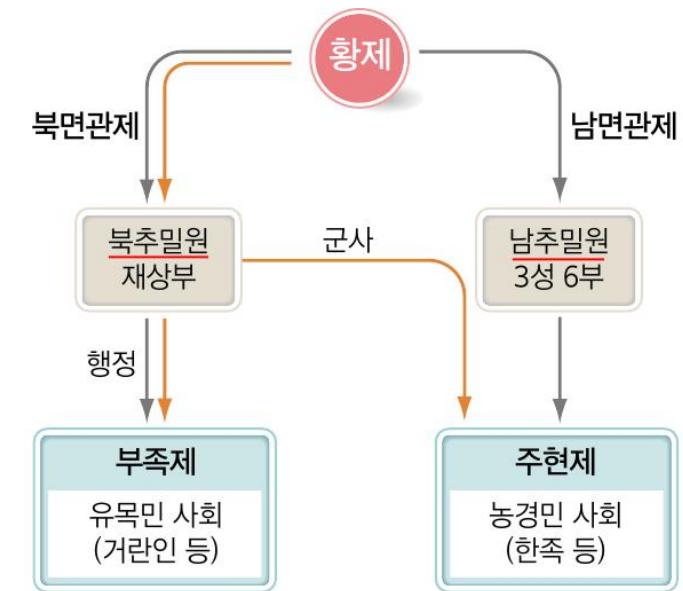


<11세기의 동아시아>

↳ *대리(937~1253)



<연운 16주[연주(유주) = 베이징]>



<북면관·남면관제>

Chapter. 11 - 3

탕구트(西夏, 강족에서 분리)의 성장**

서하 건국([이원호](#), 1032) \Rightarrow 칭제건원(1038) \Rightarrow 북송과 강화 조약(~인종, 군신 관계, 1044) \Rightarrow 둔황 장악, 중계 무역으로 번성 \Rightarrow 칭기즈 칸에 멸망([1227](#))

11세기에 탕구트가 세운 서하(西夏)는 비단길을 장악하고 동서 교역을 통해 발전하였다. 서하는 거란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어 평화를 유지하였지만, 송과는 책봉과 교역을 둘러싼 마찰로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송은 매년 비단과 은, 차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하와 화약(경력의 화약, 군신 관계, 1044)을 맺었다.



〈서하 왕릉(릉경)〉

Chapter. 11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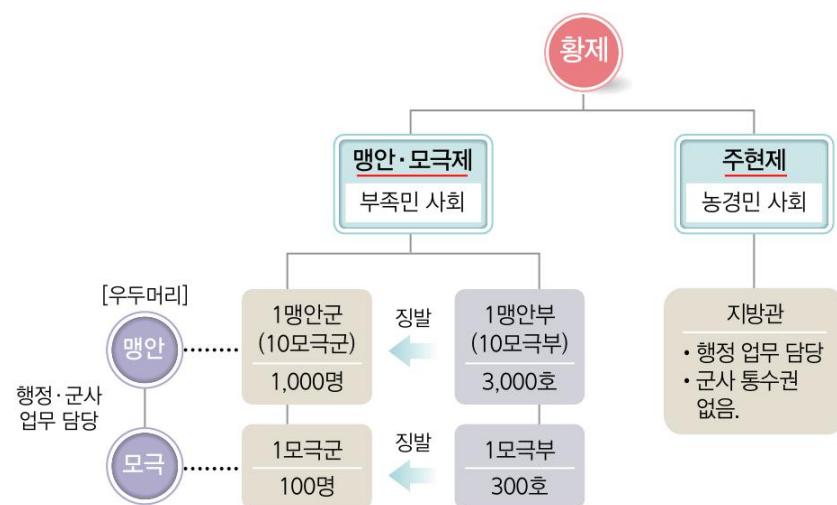
여진(金)의 성장**

금 건국(1115) \Rightarrow 요 정복(1125) \Rightarrow 북송 정복(1126) \Rightarrow 중도 천도(1153) \Rightarrow 카이펑 천도(1157) \Rightarrow 중도 천도(1161) \Rightarrow 카이펑 천도(1215) \Rightarrow 멸망(1234)

여진은 만주 일대에서 수렵과 농경에 종사하던 민족으로, 완예부의 아구다가 부족을 통합하여 금(金)을 세웠다. 금은 연운 16주의 회복을 노리던 송과 연합하여 거란을 무너뜨리고, 송마저 공격하여 멸망시킨 뒤 화북 지방을 차지하였다. 거란 대신 동아시아의 강자가 된 금은 비단과 은 등 막대한 물자를 받는 조건으로 강남 지방에 세워진 남송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다[소흥(황통) 화의, ~고종(조구), 군신 관계, 비단 25만 필·은 25만 양, 1142]. 고려와 서하도 금에 조공(군신 관계 체결)하고 교역하였다.



〈12세기의 동아시아〉



〈금(여진)의 이원적 통치 체제〉

금은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이원적 통치 제도를 시행하였다. 전통적인 씨족 조직이자 군사 조직인 맹안·모국제로 여진족을 다스렸고, 한족 등의 농경민을 주현제로 통치하였다.



〈여진 문자〉

북송 건국(카이펑, 960) ⇄ 태조의 문치주의 정책 ⇄ 태종(2)의 5대 10국 시대 통일(979) ⇄ 진종(3) 대 전연의 맹약 체결(1004) ⇄ 신종(6) 대 왕안석의 신법(1069) ⇄ 정강의 변[흡종(9), 1126] ⇄ 남송 건국[고종(1), 임안(항저우), 1127] ⇄ 소흥 화의[고종(1), 1142] ⇄ 남송 멸망[소제(9), 1279]

북송은 문치주의를 내세워 절도사 세력을 약화하고 황제권의 강화에 힘썼다. 그 결과 북방 민족 국가보다 군사력이 열세에 놓이자, 그들과 맹약을 맺고 매년 막대한 물자(세제)를 제공하여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11세기에 왕안석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신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시행을 둘러싸고 당쟁이 격화되면서 오히려 국력이 약해졌다. 1126년 북송이 멸망한 후 1127년 임안(항저우)을 수도로 남송이 세워졌다. 남송은 금과의 전쟁을 거려 군신 관계를 맺고 매년 25만 필의 비단과 25만 양의 은을 바쳤다. 그러나 여러 차례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등 두 나라의 관계는 안정적이지 않았다.

지문 확인

북방 민족의 성장과 새로운 외교 질서

① 전연의 맹약(『천재·미래엔 교과서』, p.61 · 55)

- 송의 황제와 요의 황제는 형제의 교분을 갖는다.
- 송은 요에 해마다 비단 20만 필, 은 10만 양을 보낸다.
- 양국의 국경은 현 상태로 한다.

- 『속자치통감장편』 권 58

거란과 강화하고 천하에 사면령을 내렸다. …… 거란에 매년 은 10만 양, 비단 20만 필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서로 남조와 북조로 칭하기로 하였다.

- 『송사』

② [가] = [], [나] = []

수도를 포위당한 [가]이/가 [나]에 큰아버지와 조카 관계를 서약한 국서(國書)를 보내고 우호 관계를 회복하였다. 얼마 후 [가]이/가 다시 군대를 일으켜 [나]을/를 공격하였지만 오히려 수도(카이펑)가 함락되고 황제가 사로잡혔다. 이에 일부 황족이 강남으로 옮겨 가 임안(항저우)을 수도로 삼았다.

③ 소흥 화의(1142)[가] = ___, [나] = ___]

지금 [가]와/과 [나]은/는 화의를 맺어 화이허강(淮水)과 대산관을 잇는 선으로 국경을 정합니다. 아울러 [가]은/는 대대손손 삼가 신하의 절의를 지켜 [나] 황제의 탄신일과 정월에 사절을 보내 문안 인사를 여쭙고, 매년 봄에 비단 25만 필과 은 25만 양을 보내겠습니다.

건국(왕건, 918) ⇒ 후삼국 통일(936) ⇒ 만부교 사건(거란에 대한 강경 정책, 942) ⇒ 과거제 실시(958) ⇒ 북송과 수교(962) ⇒ 거란의 제1차 침입(993)
 ⇒ 강동 6주 획득(서희, 994) ⇒ 강조의 정변(목종 폐위, 1009) ⇒ 거란의 제2차 침입(1010) ⇒ 거란의 제3차 침입(1018) ⇒ 귀주 대첩(강감찬, 1019) ⇒
 천리장성 축조 ⇒ 별무반 조직(윤관, 1104) ⇒ 동북 9성을 축조(1107) ⇒ 금과 군신 관계 체결(1126) ⇒ 몽골의 침입(1231) ⇒ 강화 천도(1232~1270)

926년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뒤 고려에 친선을 요구하자, 북진 정책을 추진하던 고려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거란은 북송을 공격하기에 앞서 993년 고려를 침공하였다. 고려의 서희는 송과 관계를 맺겠다는 조건으로 거란의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화약을 맺었다. 이때 고려는 청천강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강동 6주 지역을 차지하였다. 거란은 두 차례 더 고려를 침공하였으나, 고려는 이를 물리쳤다. 이후 고려, 송, 거란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으며, 고려는 거란과 조공 관계를 맺고 평화를 유지하였다. 여진이 성장하면서 고려를 위협하자, 윤관(?~1111)은 이들을 물리친 후 동북 지역에 9성을 축조하였다. 이후 여진은 세력을 키워 금(金)을 건국하고 고려에 사대를 요구하였다. 고려 조정에서는 찬반 의견의 대립 끝에, 결국 현실을 인정하고 금에 조공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거란과 금에 대한 조공과는 별도로 여전히 송 및 남송과 해상 교역을 유지하면서 각종 문물을 교류하였다.



① 994년 서희의 외교 담판(『천재 교과서』, p.61)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서 일어난 나라이기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소. 만일 영토의 경계로 따진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랴오허 강 중류 부근)이 모두 우리 땅이거늘 어찌 침범이라 하리오. 또 압록강의 안팎도 모두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거주하면서 두 나라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의 옛 땅을 되찾은 다음에 성을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하면 어찌 (그대 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지 않으리오.

- 『고려사』 서희 열전

② 고려와 여진의 관계(『금성 교과서』, p.74)

- (1109년) (고려는) “너희가 9성을 반환을 요청했으니 이전에 했던 약속처럼 하늘에 대고 맹세하라.”라고 하였다. 추장 등은 함주 성문 밖에 제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맹세하여 밀하기를, “지금 이후 대대손손까지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해마다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 이 맹세에 변함이 있으면 우리나라를 망하여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하고 맹세를 마치고 물러갔다.
- (1126년) 백관을 불러 금을 섬길지 말지를 의논하니 모두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자겸·최준경 두 사람만 사대를 주장하자 (임금 인종은) 이를 따랐다.

- 『고려사』

개념 Check

- ① 5대 10국의 분열 시대는 조광윤이 세운 ()에 의해 수습되었다.
- ② 1004년 송(宋)은 ()과 전연의 맹약을 통해 형제 관계를 체결하고, 은과 비단을 바쳤다.
- ③ 거란은 이원적 통치 정책을 실시하여 유목민과 농경민을 ()로 나누어 다스렸다.
- ④ 11세기 전반 중국의 서쪽 지역에서 탕구트족이 ()를 건국하였다.
- ⑤ 금(金) 왕조는 송대에 사용하던 교자를 이어받아 12세기에 ()를 발행하였다.
- ⑥ 거란, 탕구트, 여진 등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 ⑦ ()의 개혁이 실패한 이후 국력이 쇠퇴한 북송은 금에 의해 멸망하였다.
- ⑧ 1126년 금의 공격으로 북송의 수도 ()이 함락되었으며, 이후 임안(항저우)에 남송이 수립되었다.
- ⑨ 요의 제1차 침입 때 고려의 서희는 외교 담판으로 ()를 확보하였다.
- ⑩ 고려는 1104년 윤관의 건의로 ()을 편성하여 여진을 정벌하였다.

01.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6-수-06]

(가) █이/가 국경에서 소란을 일으키자 그 병화(兵禍)가 우리의 수도에까지 이르렀다. 짐이 생각하건대 우리 █(나)█은/는 █(다)█와/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지만, 은혜와 예의를 베풀었으니 어려울 때 함께 적과 싸워 줄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 █(다)█은/는 █(가)█와/과 서로 가까이 마주 보면서도 오랑캐의 소굴을 소탕하여 우리에게 보답하지 않으니, 어찌하여 여러 대에 걸쳐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가)█ 사람들은 예전에 왕에게 신하로 복속하면서 바닷가 모퉁이에 모여 살던 보잘 것 없는 종족이었는데, 우리와 함께 거란(요)을 멸망시키더니 드디어 우리를 도육하고 그 간사함과 횡포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 ① (가) -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 ② (가) - 누르하치가 건국하였다.
- ③ (나) - 서하와 전쟁을 벌였다.
- ④ (나) - 맹안·모극제를 운영하였다.
- ⑤ (다) - 5대 10국의 혼란을 수습하였다.

02.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6-9모-07]

(가) █은/는 동전이 부족하여 황허강 남쪽에서는 교초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교초는 교초소에서 제작한다고 알려졌다. 성상(聖上)께서는 █(가)█에게 세폐를 보내는 사절단과는 별도로 선제(先帝)의 능침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6월에 국경을 넘었고 8월에 야남경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본래 우리 나라의 수도 카이펑이었다. 여기에 교초소가 있었다. 국경을 넘은 지 80여 일 만에 █(가)█의 수도인 중도(연경)에 도착하여 황제를 알현하였다.

- ① 탕구트족이 세웠다.
- ② 거란(요)을 멸망시켰다.
- ③ 토번에 화번공주를 보냈다.
- ④ 5대 10국의 분열을 수습하였다.
- ⑤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원정을 단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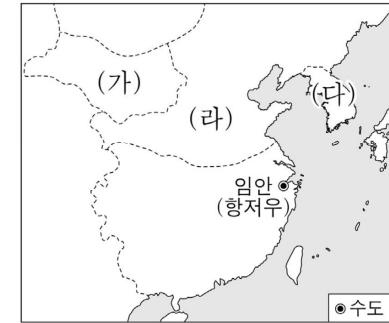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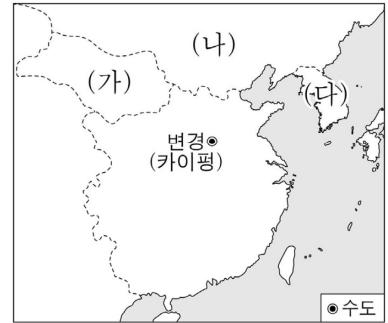
03. 밑줄 친 '북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수-03]

신(臣)은 칙명을 받은 후 변경(汴京)을 떠나 백구교를 건너 북조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자 상경 임황부로부터 파견된 접반사와 접반부사가 말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접반부사는 남조 황제의 성체(聖體)가 건강하신가 물었고, 신도 북조의 군주 및 태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읍(揖)하고 북정(北亭)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조정이 오래의 뒤를 이어 천하를 평정했을 때는 이러한 인사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들과 강화한 아래 사자를 주고받을 때마다 관행적으로 이를 반복해 오고 있다 들었습니다.

- ① 남송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 ② 금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 ③ 평성 백등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④ 고구려와 조공·책봉 관계를 수립하였다.
- ⑤ 카라코룸에 수도를 두고 서방 원정군을 파견하였다.

04.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5-9모-08]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변화>



<보기>

- ㄱ. (가) - 발해를 멸망시켰다.
- ㄴ. (나) - 연운 16주를 차지하였다.
- ㄷ. (다) - (나)와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 ㄹ. (라) - 맹안·모극제를 실시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05.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수-03]

황제는 다시 출병하여 연운 지역을 수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황족인 아울대석이 “동쪽에서 흥기한 이 나라의 군대가 장춘과 요양을 함락시키자 황제께서 중경을 수도로 삼았고 … (중략) … 운중에서 혁산으로 피난 오셨습니다. 나라의 온 힘을 모아 전쟁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 대부분의 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 (중략) … 마땅히 병사를 기르고 때를 기다려 움직여야지 경솔하게 군대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간언하였다. 그러나 황제는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출병하였다가 이 나라의 군대에 사로잡혔다.

- ① 발해를 멸망시켰다.
- ②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 ③ 맹안·모극제를 실시하였다.
- ④ 5대 10국의 분열을 수습하였다.
- ⑤ 탕구트족의 이원호가 건국하였다.

06. (ㄱ), (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수-12]

(가) 의 황제는 흥경에서 국서를 보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여러 번 사양하였으나 주위에서 계속 황위에 오르라 재촉하니 어쩔 수 없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양국 사이에 전쟁이 여러 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란(요)에 세폐로 비단, 은 등을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주신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나) 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사신을 보내 책봉하고 인장을 하사하였고, (가) 은/는 (나) 의 신하가 될 것을 약속하였다.

- ① (가) - 탕릉을 수도로 삼았다.
- ② (가) - 고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 ③ (가) - 유목 민족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 ④ (나) - 문성 공주를 토번에 보냈다.
- ⑤ (나) - 쩐훙다오의 군대에 패배하였다.

07. (가) 국가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9모-03]

(가) []의 아울덕왕이 석경당을 대진 황제로 책봉하며, 자신의 의관을 풀어 하사하였다. 그러자 석경당은 단을 쌓고 그날 하늘에 고한 뒤 황제에 즉위하였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유주·계주·탁주·운주·응주 등의 16개 주를 떼어서 [가]에 바쳤다. 아울러 해마다 비단 30만 필도 현상하기로 하였다.

- ① 백등산에서 한 고조를 포위하였다.
- ② 백강 전투에서 왜군과 격돌하였다.
- ③ 호라즘을 정복하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 ④ 송과 전연에서 형제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 ⑤ 무로마치 막부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08.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6모-04]



- ① (가) - 발해를 멸망시켰다.
- ② (가) - 대월을 공격하였다.
- ③ (가) - 맹안·모극제를 실시하였다.
- ④ (나) - (가)를 정복하였다.
- ⑤ (나) - 거란(요)과 전연에서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09.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수-16]

국가 체제를 정비한 그는 서하를 복속한 후 화북(華北)으로 향했다. 이에 □(가)□은/는 위소왕의 딸 기국 공주를 보내고 아울러 금, 비단, 말 3천 필을 바치며 강화를 맺었다. 그러나 얼마 후 □(가)□이/가 남쪽의 카이펑으로 천도하자, 그는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여 종도(연경)을 함락하였다.

- ① 발해를 멸망시켰다.
- ② 맹안·모극제를 시행하였다.
- ③ 당에게 화번공주를 요구하였다.
- ④ 두 차례의 일본 원정을 단행하였다.
- ⑤ 거란(요)과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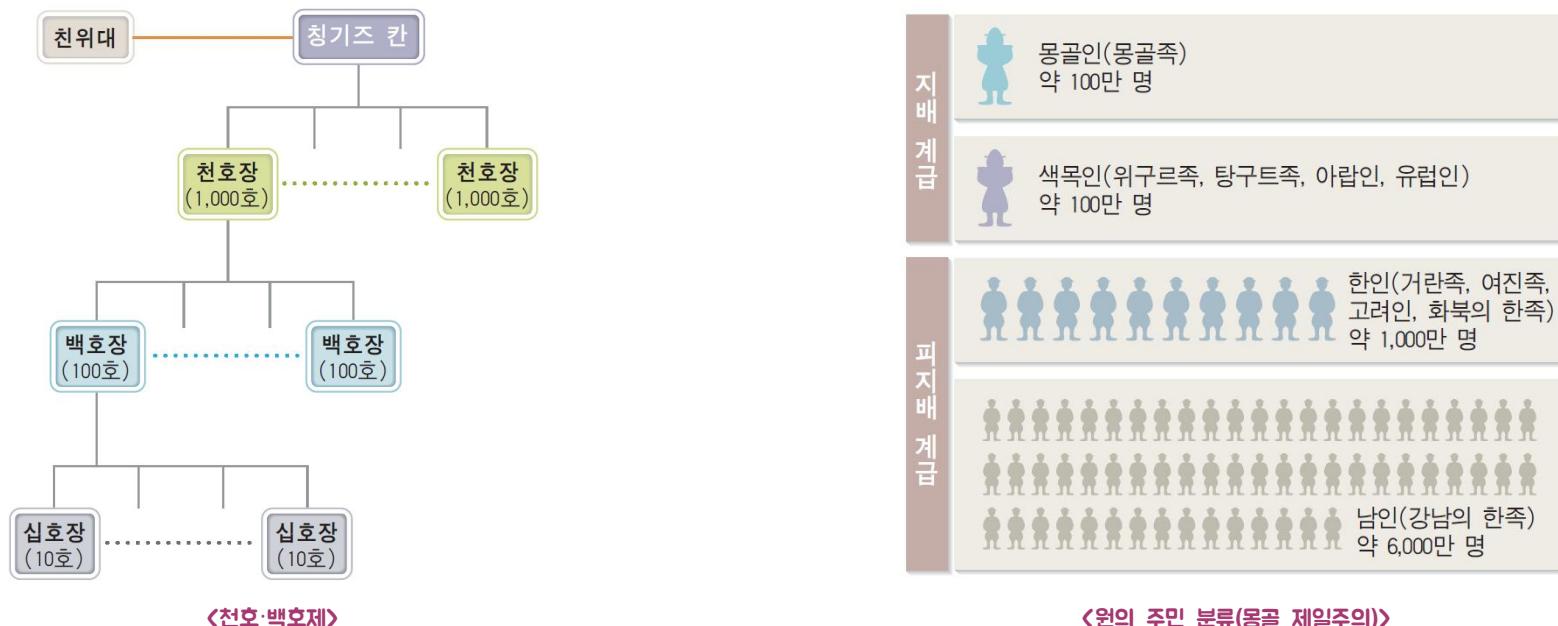
10. (가), (나) 국가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6모-02]

- □(가)□은/는 과거에 북면관만 있었다. 이후 연주(燕州)와 운주(雲州) 등 16주를 얻고서 당의 제도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3성 6부, 어사대, 동궁 등 남면의 관제를 두었다. 진실로 제왕의 성업을 이루고자 하여 당의 제도로써 한족(漢族)을 위무하여 따르게 하였던 것이다.
- 군대 조직의 숫자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정해진 제도가 없었다. □(나)□의 태조가 즉위한 이듬해 300호를 모극으로 하고, 10개의 모극을 맹안으로 삼게 하였다. 이후 주변 부족이 항복해 오자 맹안과 모극의 명칭을 각 수령에게 주어 그 주민을 다스리게 하였다.

- ① (가) - 발해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 ② (가) - 호라즘을 정복하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 ③ (나) - 왜와 연합하여 백강 전투에 참여하였다.
- ④ (나) - 무로마치 막부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 ⑤ (가), (나) - 송과 형제 관계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테무친의 부족 통합과 몽골 제국 수립(1206) ⇒ 서하 복속(1209) ⇒ 금과 화친 조약 체결(1214) ⇒ 금의 연경 합락(1215) ⇒ 호라즘 정복(1220) ⇒ 금 정복(1234) ⇒ 베트남 제1차 침입(1257) ⇒ 고려 복속(1270) ⇒ 삼별초의 대몽 항전(1270~1273) ⇒ 국호 ‘대원’(1271) ⇒ 베이징 천도(1272) ⇒ 여·원 연합의 일본 원정(1274 · 1281) ⇒ 남송 멸망(1279) ⇒ 베트남 제2차 원정(1284) ⇒ 베트남 제3차 원정(바익당강 전투, 쩐홍다오, 1287) ⇒ 멸망(1368)

13세기 초 몽골 초원 지대에서 테무친이 몽골계 부족들을 통합하고 쿠릴타이에서 칭기즈 칸으로 추대되었다(1206). 그는 자신의 나라를 예케 몽골 울루스(Ulus), 즉 대원대 몽골국(大元大蒙古國)이라 불렀다. 칭기즈 칸은 천호·백호제를 군사적 기반으로 하여 대외 정복에 나섰다. 먼저 서하를 공격하여 조공을 받고 금을 침공하였다. 이어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왕국을 무너뜨리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그의 후계자들은 동유럽의 키예프 공국을 점령하여 초원길을 손에 넣음으로써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오고타이(우구데이) 칸(재위 1229~1241)은 몽골 사신 저고여 살해 사건(1225)을 계기로 1231년 고려를 침공하는 한편, 1234년에는 금을 멸망시켜(채주 점령) 유목민 세계를 통합하였다. 1270년 쿠빌라이 칸(재위 1260~1294)은 고려를 복속한 후 1279년 남송을 정복하여(by 바얀, 중국 전역 지배) 동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하였다. 또 고려·몽골 연합군을 조직하여 1274년과 1281년 총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를 침공하였으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실패하였다. 몽골군은 3차례[1257(몽케 칸), 1284-1287(쿠빌라이 칸)]에 걸쳐 대월(쩐 왕조)을 침공하였지만, 쩐홍다오(1228~1300)의 활약으로 저지되었다. 그 후 대월의 촌 왕조(1225~1400)는 전쟁을 피하고자 몽골에 조공 사신을 보냈다. 이어 몽골은 자와를 공격하는 등 군사적 위세에 힘입어 해상 교역로(바닷길)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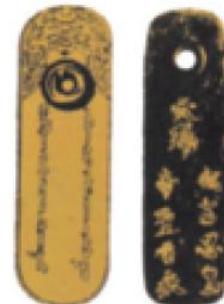
몽골 제국은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제국 전역에 역참(驛站)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의 명령이 제국의 전 지역에 신속하게 전달되었고, 지역의 사정이 중앙으로 보고되었다. 역참 제도는 군사적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몽골 제국이 안정되면서 교역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몽골 제국의 등장으로 초원길이나 비단길에 동서 교역을 독점하거나 방해하던 국가나 세력이 사라져 동서 교역이 안정되었다. 바닷길을 장악한 원은 항저우, 취안저우, 칭다오 등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동아시아 각지로 항해하는 무역선을 관리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일본, 대월, 동남아시아를 잇는 동아시아 교역망이 형성되었다. 동아시아 교역망은 동남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인도양 교역망과 연결되고, 다시 지중해 교역망으로 연결되었다. 교역이 발달하자 단일 화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몽골 제국은 오고타이 칸 때부터 교초(交鈔)를 발행하였다. 특히, 쿠빌라이 칸 때 발행한 중통원보교초는 금이나 은과 교환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화폐였으므로, 몽골 제국 전역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동서 교역의 영향으로 문물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서아시아의 천문학, 역법, 지도학 등이 원에 소개되었고, 그 영향으로 수시력이 만들어졌다(곽수경, 1281). 이슬람의 과학은 원을 거쳐 고려에 전해졌고, 조선에서 『Honil Gangriye Daegukdo지도』(1402)와 『칠정산』(1442) 등을 제작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마르코 폴로(1274)와 이븐 바투타(1344) 등이 입국해 활동하기도 하였다.



<몽골 제국의 주요 교통로>



<교초>



<파이자(패자)>

| 신석기 | 청동기 | 반량국 | 어우락 왕국 | 남월국 | 40~43 | 옹오 왕조 | 리 왕조 | 쩐 왕조 |
|---------|-------|---------------------|-------------------|---|------------------------|-----------------------------|----------------------------------|--|
| 퐁응우옌 문화 | 동썬 문화 | 흉 브엉 건국 동썬 문화 기반 | 안 즈엉브엉 남월국에 멸망 | 기원전 203 ↳ 찌에우다 건국 기원전 111년 멸망 ↳ 한9군 설치 | 쫑 자매의 봉기 후한 광무제의 진압 | 939년 성립 ↳ 5대 10국의 분열로 독립 | 1009 ~ 1225 과거제 실시 국호 ‘대월’ | 대동 항쟁 승리 : 쩐훙다오 쓰놈 문자 『대월사기』 편찬 |

옹오 왕조(939~944) ⇒ 딘 왕조(968~980) ⇒ 전 레 왕조(980~1009) ⇒ 리 왕조 성립(1009~1225) ⇒ 문묘 건설(1070) ⇒ 과거제 도입(1075) ⇒ 국자감 설치(1076) ⇒ 쩐 왕조 성립(1225) ⇒ 몽골의 제1차 침입(1257) ⇒ 『대월사기』 편찬(1272) ⇒ 몽골의 제2차 침입(1284) ⇒ 몽골의 제3차 침입(바익당강 전투, 1287) ⇒ 쩐 왕조 멸망(1400) ⇒ 호 왕조 수립(1400) ⇒ 호 왕조의 멸망과 명의 지배(1407~1427) ⇒ 후 레 왕조 성립(1428~1788)**

● 몽골의 침략과 베트남의 저항(『천재 교과서』, p.62)

쩐홍다오(1228~1300)는 쩐 왕조(1225~1400)의 장군으로, 3차례에 걸친 몽골군의 침략을 물리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몽골의 제1차 침입(몽케 칸, 1257) 때 대월의 북방을 굳게 지켰다. 몽골의 제2차 침입(쿠빌라이 칸, 1284) 때는 수도 탕롱(지금의 하노이)이 합락되고 황제(인종, 재위 1278~1293)까지 항복을 고려하자, 50만 대군에 맞서 최후까지 저항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때 『격장사(檄將士)』라는 유명한 글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해 몽골군을 대파하고 탕롱을 탈환하였다. 몽골군의 제3차 침입 때(1287)는 소수의 병력이었음에도 탁월한 전략으로 몽골군에 대승을 거두었다. 오늘날 베트남 사람들은 쩐홍다오를 흥다오 대왕으로 신격화하여 베트남의 독립을 지킨 영웅으로 존경하고 있다.



〈쩐홍다오 동상(호찌민)〉

개념 Check

- ① 1206년 테무친은 쿠릴타이에서 ()으로 추대되었다.
- ② 몽골에 침입에 대응하여 고려는 1232년 ()로 천도하였다.
- ③ 고려에서는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하여 ()가 끝까지 항전하였다.
- ④ 원은 지방에 ()를 파견하여 다스렸고, 고려에도 이들을 파견하여 내정에 간섭하였다.
- ⑤ 칸으로 즉위한 쿠빌라이는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로 옮겼고, 국호를 대원으로 바꾸었다.
- ⑥ 몽골은 주요 간선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을 설치하였다.
- ⑦ 원대에 항저우, 취안저우, 칭다오 등지에 ()가 추가로 설치되어 해상 교역을 관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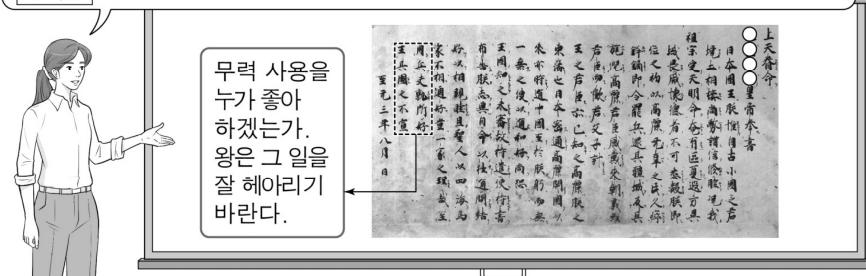
01. 밑줄 친 '황제'의 재위 시기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6-수-08]

국왕이 아뢰기를, “일개 섬 오랑캐가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입조(入朝)하지 않으며 감히 천자의 군대에 항거하고 있습니다. 신(臣)이 생각하건대 다시 배를 건조하고 양곡을 비축한 다음, 오랑캐의 죄상을 성토하고 함께 토벌에 나선다면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왕은 개경으로 돌아가 재상들과 깊이 의논한 다음 사람을 보내서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① 금이 멸망하였다.
- ② 남송이 정복되었다.
- ③ 천계령이 해제되었다.
- ④ 오닌의 난이 발생하였다.
- ⑤ 정화의 함대가 파견되었다.

02.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6-6모-10]

이것은 (가) 이/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우호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위협적인 표현도 확인됩니다. (가) 은/는 (나) 와/과 교역하던 일본의 굴복을 기대했지만, 요구가 거절되자 군대를 파견하였습니다. 정복에 실패하자, (나)의 수도 임안(항저우)을 점령하고 일본에 재차 원정군을 보냈습니다.



〈보기〉

- ㄱ. (가) - 백강에서 왜군을 격퇴하였다.
- ㄴ. (가) - 주요 도로에 역참을 설치하였다.
- ㄷ. (나) - 금과 강화를 맺고 세폐를 보냈다.
- ㄹ. (나) -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진압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3. (ㄱ), (ㄴ) 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수-06]

- (가) 은/는 중앙아시아 일대를 얻기 위해 출정하여 닭의 해에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부하라, 바닥샨, 카슈가르 일대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 후 탕구트의 군주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를 징벌하고자 탕구트를 공격하게 하였다.
- 대리를 정복한 지 이십여 년이 지났다. (나) 은/는 바얀에게 명하여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마지막 남은 강남을 정복하게 하였다. 바얀의 군대는 창장강을 건넌 뒤 건강에서 세 길로 나누어 고정산에 도달하였다. 그러자 그곳의 군주가 신하를 보내 국새를 지니고 와서 항복의 표문(表文)을 바쳤다.

- ① (가) - 국호를 원으로 바꿨다.
- ② (가) - 고려 정벌을 시작하였다.
- ③ (가) - 베트남에 원정군을 파견하였다.
- ④ (나) -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하였다.
- ⑤ (나) -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원정을 단행하였다.

04. 밀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9모-05]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

14년 여름 황제는 자신의 사자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서역에 군대를 이끌고 친정에 나섰다.

16년 봄 황제는 적의 수도를 공격하였고, 그의 아들 주치가 인근의 성을 함락하였다.

17년 여름 호라즘의 술탄 잘랄 웃딘이 도망가자, 발라가 추격했으나 사로잡지 못하였다.

18년 여름 주치 등이 군대를 이끌고 왔다. 황제는 마침내 호라즘의 여러 성을 정복하고 다루가치를 두어 그곳을 다스렸다.

- ① 천호제를 실시하였다.
- ② 대의각미록을 편찬하였다.
- ③ 5대 10국의 분열을 수습하였다.
- ④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하였다.
- ⑤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원정을 단행하였다.

05. (ㄱ), (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4-9모-11]



<보기>

- ㄱ. (가) - 호라즘을 정복하였다.
- ㄴ. (나) - 임안(항저우)을 수도로 삼았다.
- ㄷ. (나) - 토번에 화번공주를 파견하였다.
- ㄹ. (가)와 (나) - 전연에서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ㄱ), (ㄴ), (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6모-08]

발해를 멸망시키고 세력을 확장한 (가)은/는 송을 압박하며 전연군에서 맹약을 맺었다. 이후 송은 세폐를 지급하며 전란을 피해 왔다. 송은 (나)이/가 공격하자 창장강 이남으로 조정을 옮겼고, 세폐로 은 25만 냥과 비단 25만 필을 주기로 하여 멸망을 모면하였다. 그러나 (나)을/를 멸망시킨 (다)이/가 일찍이 사신을 보내 세폐로 은 20만 냥과 비단 20만 필을 요구하였으나 남송은 주지 않았다.

- 『이십이사차기』 -

- ① (가) -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 ② (나) - 탕통을 수도로 삼았다.
- ③ (나) - 낙랑군을 축출하여 성장하였다.
- ④ (다) - 선우 아래 좌현왕 · 우현왕을 두었다.
- ⑤ (다) - 호라즘을 무너뜨리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07.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수-09]

유약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우리 태후는 연로하시고 새로 즉위한 황제도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상중(喪中)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으니 군대를 물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바얀이 답하기를 “우리 황제가 즉위하시고 바로 너희와 수교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으나, 너희가 오랫동안 가두었으니 군대를 동원해 죄를 묻는 것이다.”라고 꾸짖었다. 결국 □(가)□의 어린 황제가 멀리 북쪽에 있는 □(나)□ 황제의 궁궐을 향해 절을 한 뒤 항복하였고, 곧이어 바얀이 □(가)□의 수도 임안을 함락하였다.

- ① (가) - 백제에 불교를 전해 주었다.
- ② (가) - 야마타이국의 조공을 받았다.
- ③ (나) - 맹안 · 도극제를 실시하였다.
- ④ (나) - 일본 원정을 두 차례 단행하였다.
- ⑤ (나) - (가)와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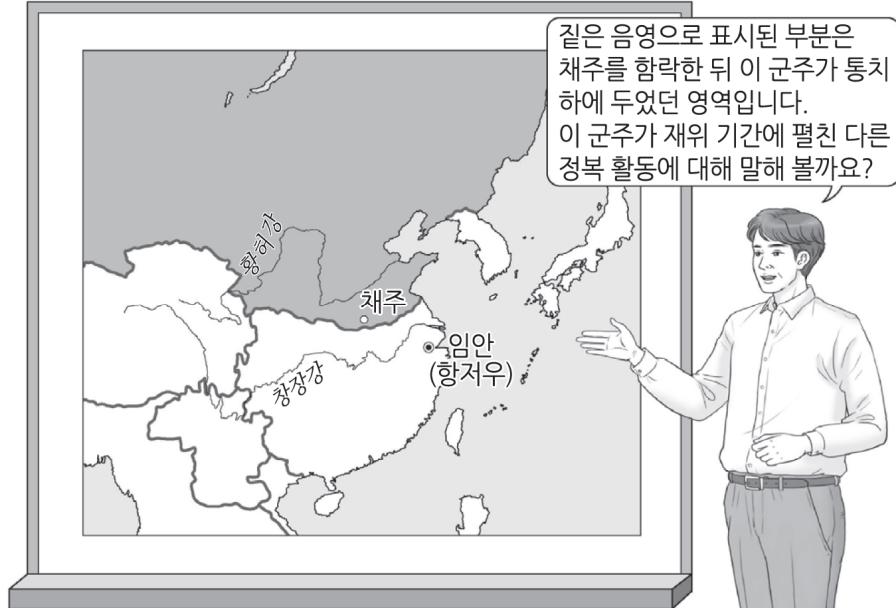
08.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6모-07]

(가) □은/는 일본에 조공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고려와 연합군을 편성하여 침공하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전쟁에도 불구하고 □(가)□와/과 일본 사이에서는 교역선이 자주 왕래하였어요. 나가사키현 다카시마 해저에서 발견된 데쓰하우는 화약 무기를 사용했던 전쟁의 모습을 보여 주고,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인양된 신안선은 활발한 교역의 모습을 전해 주지요.



- ① 광동 무역 체제를 구축하였다.
- ② 천흥다오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 ③ 데지마에 네덜란드 상관을 두었다.
- ④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겼다.
- ⑤ 베트남 북부에 안남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09.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9모-06]



- ① 블라카를 점령했어요.
- ② 거란(요)을 정복했어요.
- ③ 일본 침공을 단행했어요.
- ④ 고려로 원정군을 파견했어요.
- ⑤ 서하를 공격하여 굴복시켰어요.

10. (가) 제국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6모-06]

- 여러 왕자들이 개평부에 모여서 관례에 따라 무릎을 꿇고 충성을 서약하며 쿠빌라이를 □ (가) □의 칸으로 추대하였다.
- □ (가) □은/는 교조인 중통원보를 발행하여 각 지방에 유통시켰다. 중통원보를 오래 사용하여 낡으면 관청에서 새것으로 바꾸어 주었다.

- ① 쪐 왕조를 공격하였다.
- ② 전연의 맹약을 맺었다.
- ③ 백강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 ④ 야마타이국의 조공을 받았다.
- ⑤ 막부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